

2019. 3. 26(화) 국회도서관 대강당

한국법제연구원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학술행사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법'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선진법제를 갖추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한 주요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제도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환영사와 박광운,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를 시작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참석한 전문가의 기조발제와 국내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국제적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에 특화된 법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행사에서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제도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 3. 27(수) 세종시 소재 식당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2019년 제1차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법제처는 양 기관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과 법제처 김외숙 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각 기관의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협의회에서 행정기본법(가칭) 제정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들을 논의했으며 법제처와 연구원 주관의 민·관 연합학술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의 2020년 연구 과제 발굴에서의 법제처의 적극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는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정기적으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2019. 4. 26(금)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한국법제연구원-한국비교공법학회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통일정책과 방향에 따른 통일법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제 관련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일법제 관련 연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5년차에 접어든 통일법제연구사업을 통해 남북한 법제통합의 안정적 기틀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 4. 29(월)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도시 장소만들기와 관련 법'
제35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도시 장소만들기와 관련 법: 을지로·사직동·세종시 이야기'를 주제로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제35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2018년 5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으로 취임한 박소현 소장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박소현 소장은 발제에서 도시 장소의 생성과 향유 과정에서 도시건축 관련법의 의도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도 가져오며, 이것이 오히려 다양한 문화지층을 이루어내는 현상을 을지로 등의 사례로 분석했다.



2019. 5. 2(목) 동해시청
한국법제연구원,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과 임직원은 2일(목) 동해시청을 방문하고 강원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성금은 연구원 사회공헌 동호회원과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련되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갑작스런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작은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피해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일상에 복귀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9. 5. 8(수) 서울 더케이호텔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성과 공유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룡)가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룡)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은 무분별한 지하 공간 개발로 인한 싱크홀 발생빈도 증가, 배관파열, 건물붕괴, 화재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하에 매설된 시설들이 20년에서 50년 이상 노후화되어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파열됐을 때 지반에 틈이 생겨 대형 싱크홀 붕괴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기존에 매설된 시설에 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관리에 대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그 밖에 ▲굴착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형벌 강화 ▲피해자를 위한 복구 및 재정지원 시스템 마련 방안 등을 제언했다.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보고회에서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이 발표한 다양한 정책연구 결과에 대해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2019. 5. 23(목) 웨라톤 서울팰라스 강남호텔 로열볼룸

‘중국의 법제발전과 전망’ 주제로 법제 글로벌 인사이트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3일(목) 웨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호텔에서 ‘중국의 법제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법제 글로벌 인사이트를 개최했다.

국내 및 중국 법제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사회발전과 중국법 ▲국제규범과 중국법 ▲환경문제의 중국법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중국서남정법대학 순 더평 교수, 중국 서북정법대학 치양 리 교수, 중국 북경항공항천대학 리우 하오 교수 등이 참석했고,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이기평 부연구위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돈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 법제 글로벌 인사이트를 정기 개최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9. 5. 24(금)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멀티미디어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4일(금)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속의와 평가 기능 강화'를 주제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과 한국입법학회 임지봉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속의민주주의와 입법 평가제도 ▲입법의 속의를 위한 개별제도들을 주제로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가 '입법과정에서의 속의민주주의 강화'를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부연구위원이 '입법과정과 입법평가제도의 의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 밖에도 한국입법연구원 김기태 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법제팀장 및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발제에 참여했다. 제5주제까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 뒤에는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



임연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 토론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속의라는 큰 틀에서 보다는 입법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이번 논의가 우리나라 입법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 5. 29(수) 미국 워싱턴DC 아메리칸 대학
한국법 연구자 초청 한반도 평화 제도화 방안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아메리칸 대학에서 K-LAW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9일(수)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아메리칸 대학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주제로 K-Law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해외 우수기관의 연구자들과 한국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장으로 2012년부터 K-Law포럼을 정기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는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법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자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케이틀린 스테프스(Kathleen Stephens) 전 주미대사, 아메리칸대학교 파디데 알라이(Padideh Ala'i) 국제비교법연구소장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남북관계의 평화 프로세스의 제도화의 법적 이슈-국제법과 비교법적 관점에서(Legal Issu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Korean Peace Process from th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Cases and Lessons from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를 주제로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이어 '남북관계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법적 협력(Legal Research and Research Cooperation for Revitalizing and Developing Inter-Korean Relations)'을 주제로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전략기획실장, 류지성 부연구위원, 바루크 대학 강명구 교수, 콜롬비아 대학교 로스쿨 노정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끊임없는 변화를 겪고 있는 한반도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안정화하는 방법은 제도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이 통합과 협력적인 제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 법과대학 교육과정 내 한국법 강좌개설을 추진하고 한국법 연구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한국법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